

2020년 한국반 가을 학기 우리말 종합 평가 시험 안내

평가영역	배점 (100점)	시간	평가 내용
언어이해력 말하기 듣기 읽기 문형 문법	30점	60분	1. 문형/문법: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2. 어휘력: 어휘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하기 3. 발음과 표기: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 이해하기 4. 문장이해력: 글을 읽고 내용파악하기, 문장을 연결하는 말 찾기, 글의 흐름에 알맞은 낱말 연상하기 5. -주장과 근거: 교사가 제시하는 주장이나 근거를 듣고 주장이나 근거 말하기 -관점: 들려주는 문장을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의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여 말하기 (예: 물이 조금 있다/물이 조금밖에 없다) 6. 독해 지문 소리 내어 읽기 7. 받아쓰기
활동	10점	5분	1. 시 ‘진달래 꽃’, ‘낙화’, ‘들길을 걸으며’ 중에서 하나 낭송하기 2. 한국의 디저트 소개하기 영한 작문 발표 (10월 31일) 숙제
작문	20점	평소	한미선 선생님 평가
출석	20점	평소	출석일수 + 4
숙제/수업태도	20점	평소	구글 숙제 점수/100 + 6

문형/문법

●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넣어 문장을 전환 또는 연결 해 보세요.

-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결국 잃어버렸다. (~하고 말았다)
- 어머니가 주신 반지를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다.
- 식사 문화가 달라서 실수를 했다. (~하고 말았다)
- **식사 문화가 달라서 실수를 하고** 말았다.
- 식사하고 좀 있었다. 벌써 도착했다. (~하다 보니까)
- 식사하고 좀 **있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다.
- 선물을 많이 샀다. 돈을 다 썼다. (~하다 보니까)
- 선물을 많이 **사다 보니까** 돈을 다 썼다.
- 생일은 가족들과 같이 지낸다. (~기 마련이다.)
- 생일은 가족들과 같이 **지내기 마련이다**.
- 아름답던 마을이 폐허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다. (~기 마련이다)
-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다.

7. 김밥을 만들었어요. 친구와 먹었어요. (~아다가)
- 김밥을 **만들어다가** 친구와 먹었어요.
8. 동생을 데려왔어요. 동생 손을 닦아 주었어요. (~아다가)
- 동생을 **데려다가** 손을 닦아 주었어요.
9.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바람에)
-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10. 눈이 갑자기 내렸어요. 그래서 교통이 엉망이에요. (~하는 바람에)
- 눈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교통이 엉망이에요.
11. 놀이 기구의 속도가 빠르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얼마나~한지)
- 놀이 기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12. 올 여름은 덥다. 에어컨도 소용이 없다. (얼마나 ~한지)
-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도 소용이 **없다**.
13. 그가 화살을 겨누어 쏘면 무엇이든 맞힐 수 있었다. (~는 한)
- 그가 화살을 겨누어 **쏘는 한** 무엇이든 맞힐 수 있었다.
14. 이번 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망치게 된다. (~는 한)
- 이번 주 안에 비가 **오지 않는 한** 올해 농사는 망치게 된다.
15. 주몽을 시기했다. (~기에 이르다)
- 주몽을 **시기하기에 이르렀다**.
16.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기에 이르다)
-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기에 이르렀다**.
17. 시간이 갔다. 마르고 볼품이 없어졌다. (~을수록)
- 시간이 **갈수록** 마르고 볼품이 없어졌다.
18. 사람이 많으면 일은 수월해진다. (~을수록)
- 사람이 **많을수록** 일은 수월해진다.
19.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이 나오질 않았다. (~았는데도)
-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질 않았다.
20. 밥을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았는데도)
-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배가 고프다.
21. 책을 꾸준히 읽다.(~았더라면 ~텐데, 좋다)
- 책을 꾸준히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22. 시험에서 100점을 맞다. (~았더라면 ~텐데, 좋다)
-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 가: 케이크가 어디 갔지요? (먹다)

나: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 버렸어요. 미안해요.

23. 가: 그 영화 어땠어요? (울다)

나: 너무 슬퍼서 울어 버리고 말았어요.
슬픈 영화를 좋아하면 한번 보세요.

24. 가: 이 일을 벌써 다 했어요? (끝내다)

나: 네, 끝내 버렸어요. 내일 다른 일이 있어서요.

- (보기) 가: 무거워 보이는데 같이 들어요.

나: 보기보다 그리 무겁지 않아요. 혼자 해도 괜찮아요.

25. 가: 이 음식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먹을까요?

나: 그 음식은 그리 맛있지 않아요. 다른 거 먹어요.

26. 가: 저 산 아래까지 걸어서 갈까요? 가까워 보이는데요.

나: 그리 가깝지 않아요. 한두 시간 걸어야 해요.

- (보기)

이 옷은 아주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이만 원짜리 입니다.

- 옷이 비싸 보이지만 옷값은 이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27.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살립니다. 어린이 1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돈은 만 원 정도입니다.

- 어린이 1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돈은 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8. 그 아이는 말과 행동이 어른스럽습니다. 나이는 10살입니다.

- 그 아이는 말과 행동이 어른스럽지만 10살에 지나지 않아요.

-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넣어 문장을 전환 또는 연결 해 보세요.

29.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에는 세상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왜냐하면 ~때문이다.)

-(왜냐하면) 말에는 세상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30.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왜냐하면 책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2. 눈은 에스키모인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답: 눈은 에스키모인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33. 가 : 입학시험에서 국어와 수학이 중요합니까?

나: 네, 입학시험에서 국어와 수학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4. 한국어에는 안개비,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소나기 등과 같은 비를 나타내는 말이 많다.(예를 들면)

- 답: 한국어에는 비를 나타내는 말이 많다. 예를 들면 안개비,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소나기 등과 같은 말들이 있다.

35.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서울은 발전을 계속하였다. (~함에 따라)
-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은 발전을 계속하였다.

36. 의학이 발전하였다. 인간의 수명도 점점 더 길어지게 되었다. (~함에 따라)
-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점점 더 길어지게 되었다.

37.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38.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갈 것이다. (~할 예정이다.)
-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갈 예정이다.

* 발음과 표기

**존대말→ ~요/ 부탁 제안 기원 ~십시오

39. 한국어로 편지를 써 본 적이 있어요? - (아시오/ 아니요), 없어요.

40.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주십시오).

41. 저는 냉면을 잘 (먹어요/먹어요).

** 반드시: 꼭, 반듯이: 똑바로

42. 이 숙제는 내일까지 (반드시/반듯이) 내야 합니다.

43. 종이를 이렇게 (반드시/반듯이) 접으세요.

* 있다가:머물다가 이따가:나중에 시간...

44. (있다가/이따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45. 집에 (있다가/이따가) 오세요.

*~를/ 받침이 없거나, ㄴ 올

46. 저 가게보다 이 가게가 (할인율/할인률)이 더 높다.
47. 한국은 요즘 (출생율/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48.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의 교통 (사고율/사고률)이 더 높다.
49.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진학율)이 80% 이상이다.

* ~로서: 사람자격 ~로(써):도구

50. (친구로써/ 친구로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51. (저로서는/저로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52. 그 사람은 도와달라고 (눈물로/ 눈물로서) 호소했다.
53. 우리들은 (한국어로/한국어로서) 의사소통을 한다.

*~하므로(이유), 으으로써

54. 그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므로/공부함으로) 성적이 좋다.
55. 그가 나를 (믿음으로/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56. 이 일을 (함으로써/하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 57.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배우으로써)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58. 오늘은 (일요일이므로/ 일요일임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
59. 제 이름은 (최빅토르/ 최 빅토르)입니다.
60. (송안아씨/송안나 씨), 전화 받으세요.

*웬지: 이유없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웬 * 명사: 무슨 일??

61. 오늘은 (웬지/웬지) 피곤하다.
62.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웬 일/웬 일)인지 모르겠어요.
63. 봄인데 (웬/웬) 눈이 이렇게 내려요?
64. 오늘은 (웬지/웬지) 쉬고 싶어요.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65.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66. 왜냐하면 말에는 사람의 생활과 세상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기 67. 때문이다 . 에스키모인의 언어에는 (68. 눈) 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 많다고 한다. (68. 눈)이 그들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비를 타나 내는 말이

여러 가지 있다. (69. 예를 들면)안개비,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장대비, 소나기, 눈비, 여우비, 진눈깨비 등은 모두 비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에는 비가 많이 내릴 뿐 아니라 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또한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데 비가 중요하여 생활과 매우 가까웠다. 그러나 요즘은 농사보다 다른 산업의 비중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이 다양하게 쓰이지 않는다. 사회가 변화하면 언어도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매일 많은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많은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이 많이 생긴다. 요즘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있다. (70. 신조어)는 ‘새로 생긴 말’ 이라는 뜻이다. 71. 몸매가 좋은 사람을 ‘몸짱’ 이라 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을 ‘얼짱’ 이라고 부른다. 보통 여자들을 비유할 때 ‘꽃’이란 말을 쓰는데, 얼굴이 여자처럼 예쁜 남자에게도 붙여 ‘꽃미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말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말은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없는 가정을 ‘결손가정’ 대신 ‘한 부모 가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 준다. 새로운 말들은 누가 처음 만들어 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회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 보자.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72. 우리 나라말에 비를 나타내는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데 비가 중요하여 생활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다.

73.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말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이 많이 생긴다.

74. 장애인의 반대말을 비장애인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가정을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 준다.

<75-78> 다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한강 서울 한양 조선

(1.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도시 한가운데로 (2. 한강)이 흐르고 주변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자연환경이 좋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한국역사의 흐름에 따라 (1. 서울)은 점점 주요한 도시가 되었다. (1. 서울)이 한국 제 1의 도시가 된 것은 조선의 수도가 되면서부터이다. 조선은 1394년에 (1.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3. 한양)이라고 불렀다. 그 후 500여 년 동안 (3.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1. 서울) 여러 곳에는 (4. 조선)시대의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3. 한양)의 입구였던 송례문, 왕궁이었던 경복궁 등이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3. 한양)’은 1945년 이후 ‘(1. 서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다. (1.서울)이 한국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조선 시대 (3. 한양)은 (2. 한강)이 있어 교통이 좋고 농사를 짓기에 편리하였다. 주위에 산이 많아 외적을 막기에도 좋았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또 (3.한양)은 풍부한 물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다. 많은 산은 자연 공원의 역할을 하고 공기를 맑게 한다. 조선시대 수도였던 것도 역사, 문화적으로 큰 장점이 된다.

78. 한국의 수도인 (1.)이 한국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를 쓰세요.
(2가지 이상)

● ‘공정무역 초콜릿 1’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초콜릿 1,000원당 카카오 **재배지**에 들어가는 몫은 겨우 20원 정도에 불과하다. 초콜릿 생산자들은 카카오를 **재배**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헐값에 동원**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새 없이 고된 노동을 해야 하고, 보호 **장비**도 없이 **농약**을 치거나 높이가 10미터나 되는 나무에 올라가 카카오를 따야 한다.

마침내 **국제** 시민 단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공정 무역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공정 무역 운동은 카카오 재배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품**이나 그들이 만든 물건에 알맞은 값을 주고 **거래**하자는 운동이다.

공정한 무역으로 생산한 초콜릿을 ‘**착한 초콜릿**’이라고도 한다. 이 초콜릿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생산된 카카오로 만들어진다. 또, **농약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만든다. 카카오 **원료 생산**에서부터 초콜릿으로 **가공되기까지 강제된 노동력없이** 만들어진다.

공정 무역 초콜릿을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아프리카의 카카오 재배 농민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

1. 카카오 재배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품이나 그들이 만든 물건에 알맞은 값을 주고 거래 하자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공정 무역 운동**
2. 공정한 무역으로 생산한 초콜릿을 왜 ‘**착한 초콜릿**’이라고 하였습니까?
3. 윗글은 ‘공정무역 초콜릿’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였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설명 하였나요? **긍정적인 면**

‘공정무역 초콜릿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공정 무역으로 만들어진 초콜릿을 사면 아프리카의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정 무역 초콜릿을 사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나 카카오 생산자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공정 무역 초콜릿 판매로 얻은 많은 이익을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카카오 생산지에는 마땅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정 무역 상품이라고 하면서 불량품에 가까운 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소비자는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되는 셈이다.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나 농민들을 돕고 싶다면 초콜릿을 사 먹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우리가 초콜릿을 사 먹지 않으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굳이 카카오를 재배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 대신에 식량을 얻기 위한 농사를 지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면 스스로에게 필요한 삶을 개척하는 자립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다.

1. 윗글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나 카카오 생산자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 또한 글쓴이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고 싶다면 초콜릿을 사 먹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3. 윗글은 ‘공정무역 초콜릿’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였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였나요? 부정적인 면

● 다음에 오는 숫자를 우리말로 쓰세요.

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십일

36,312,329,517 삼백육십삼억 천이백삼십이만 구천오백십칠

421,264,246,802 사천이백십이억 육천사백이십사만 육천팔백이

1,322,333,784,236

일조 삼천이백이십삼억 삼천삼백칠십팔만 사천이백삼십육

- 마라톤 경기의 유래에 대한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마라톤 경기는 마라톤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①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어 페르시아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그러나)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터무니없는 항복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항복을 권하러 온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 1세는 매우 화가 나서 엄청난 군사를 보내어 아테네를 침공하였다. 페르시아의 장군 디디스는 수백 척의 전함과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의 해안에 상륙하였다.

아테네는 병력이 너무 부족한 바람에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즉시 지원군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고, 당시 올림픽 경기의 달리기 선수이었던 필리피데스를 ④사자로 보냈다. 그러나 막상 필리피데스가 가지고 온 대답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테네는 홀로 페르시아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의 위기를 맞은 아테네는 지략이 뛰어난 밀티아데스 장군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하였다. 두 나라의 군대는 아테네에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벌판에서 서로 맞서게 되었다. 바로 이곳이 마라톤 평원으로, 여기에서 역사적인 마라톤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테네군이 분명히 패배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②)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는 뛰어난 전술로 페르시아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아테네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모른다. 결국 아테네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알리기 위한 전령으로 필리피데스가 다시 뿔었다. 그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갔다.

"③-----."

필리피데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탈진한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뒤, 필리피데스를 기리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에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유래를 지닌 마라톤은 1896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열린 제 1회 올림픽 대회에서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의 제안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다.

(②),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이다. 이란은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4년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마라톤이 경기 종목에서 제외되었다.

마라톤 경기에서 지금과 같이 42.195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게 된 것은 1908년 제 4회 런던 올림픽 대회 때부터이다.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주 경기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42킬로미터의 코스를 설정하였다. (②)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였던 당시 알렉산드라 왕비가 윈저 궁의 발코니에 앉아 선수들의 출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여 출발점을 윈저 궁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뀐 거리가 42.195킬로미터이었고, 그 뒤에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공식 거리로 굳어졌다.

● 읽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①의 '기원전 490년'을 다른 방법(영문)으로 표기하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쓰세요. BC 490, 2511년 전

2. (②)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어주는 말(접속사)'을 고르세요.

ㄱ. 그러나 ㄴ. 그러므로 ㄷ. 그래서 ㄹ. 그리고

3.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테네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 ③에 필리피데스가 했을 말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5. '④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읽글에서 찾아 쓰세요. 전령

6. 마라톤 경기가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올림픽 대회와 년도를 쓰세요.

1896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열린 제 1회 올림픽 대회

7. 1974년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마라톤 경기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란은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8. 1908년 제 4회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 계획한 마라톤 경기의 코스 거리는 몇 킬로미터였습니까? 42km

9. 마라톤 경기에서 지금과 같이 42.195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라 왕비가 윈저 궁의 발코니에 앉아 선수들의 출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여 출발점을 윈저 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첫 부분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 소년은 개울 독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뻗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 독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 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핵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폴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발 사잇길로 들어섰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발 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 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 보았다. 물기가 겹쳐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 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쫓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 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 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1. ○에서 소년은 소녀가 윤 초시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의 첫 만남 장면을 떠올리며, 위 읽기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여 답하세요.

2. ⊖으로 알 수 있는 소년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내성적**

3. ⊕글로 알 수 있는 소녀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적극적**

4.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행동에 처음 반응을 보이게 된 문장을 쓰세요.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5. 소설 '소나기'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① **소설** ② 시 ③ 설명문 ④ 희곡 ⑤ 수필

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수식어가 많고 화려하다.

②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③ 작품 속 인물이 이야기를 전개한다.

④ 여러 개의 사건이 전개되어 구성이 복잡하다.

⑤ **감각적이고 시적인 표현의 사용으로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7. 이 글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① 서사적 감동을 느낄 수 있다.

② **향토(시골)적 서정을 느낄 수 있다.**

③ 음악적 감흥을 느낄 수 있다.

④ 희극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⑤ 도시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8. 소재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개울

② 조약돌

③ 징검다리

④ 갈밭

⑤ 분홍 스웨터

9.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없는 개구쟁이이다.

② 내성적이고 무뚝뚝하다.

③ 소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④ 친구를 사귀는 데 적극적이다.

⑤ 소녀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

10. 이 글에서 '조약돌'은 소설의 내용이 전개(펼쳐지는 것)되는 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행동에 처음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

11. (드라마, 애니메이션) '소나기'의 특징이 아니 것을 고르세요.

1) 인물과 배경을 다 정해서 보여준다.

2)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볼 수 있다.

3) 소설을 읽을 때 보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4) 중요한 순간에 음악을 점점 크게 하는 효과 등을 주어 장면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 수 있다.

12. 그림을 보고 소설, 드라마 '소나기'의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13. 드라마/소설 ‘소나기’위 처음 부분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개울**)에서 물장난하는 소녀와 마주치고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간직한다.

14. ‘소나기’ 절정 부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 1) 소녀는 얼른 비가 그치길 바랐다
- 2) 소녀는 비를 맞고 추워서 떨었다
- 3) 비를 맞아 소녀가 안고 온 꽃들이 일그러져 버렸다
- 4) 소년과 소녀는 소나기가 오자 처음에 원두막으로 피했다가 비가 새어 수숫단 속으로 이동하였다

15. ‘소나기’의 결말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유와 함께 한 가지만 써 봅시다.

16. 드라마 ‘소나기’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고 관련이 없는 단어를 모두 고르세요.

가을	운동회	채벌	추수	외양간	오줌싸개	다듬이질	돼지오줌보	대추
조약돌	장날	설날	증조	할아버지	허수아비	송진	마타리꽃	징검다리
재혼	전학							

●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업적에 관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과거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시경이 열두 살이던 **무렵**이었어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큰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병으로 자식을 모두 잃은 큰아버지는 조카 한 명을 데려가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공공이 의논한** 끝에 둘째 아들인 주시경을 큰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주시경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서울에 온 뒤 주시경은 큰 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어요.

열여덟 살이 된 주시경이 중국의 옛 시집인 ‘시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시전’을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

“내가 한 구절을 읽을 테니 따라 읊으려무나. ‘벌목정정 조명앵앵.’”

학생들은 멍하니 선생님을 따라 **읊었어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시경도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벌목정정, 나무 찍는 소리는 쟁쟁 울리고, 조명앵앵,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 이리 쉬운 시도 풀이를 못 하다니 공부를 게을리 하였구나!”.

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주시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 ‘저 뜻 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 소리였다니!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주시경은 그전에도 한문 글귀를 못 알아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주시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 찍는 소리 쟁쟁은 쟁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정을 쓰고,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새가 운다는 뜻의 한자 앵을 쓴 거야. ‘쟁쟁’과 ‘짹짹’이라고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원래 소리에도 가까운데 말이야.’

주시경은 답답한 마음에 첩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몇 해 전 배운 한글을 흙 바닥에 끼적였어요. 십 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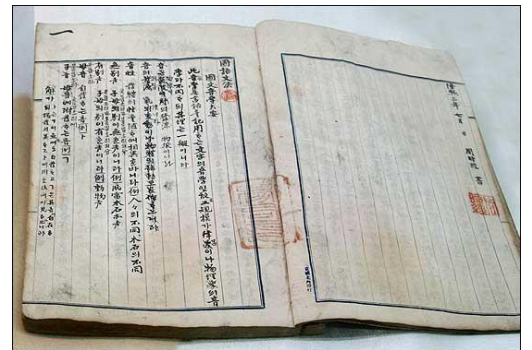
그날 이후 주시경은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

1894년 열아홉 살이 된 주시경은 배재학당에 입학해 지리, 수학,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다져 나갔어요. 주시경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업이 끝나면 인쇄소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했지만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어요.

주시경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훈민정음(訓民正音)’을 ‘큰, 하나의 글’이라는 순수 한글 이름인 ‘한글’로 바꿨어요. 세종대왕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며 고생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한 한글을 널리 사용하게 하는데 앞장 섰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쉽게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한문만을 글로 여기고 우리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시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빌려 봐야 하는 자료는 일일이 베껴서 모았지요.

1906년 주시경은 ‘대한 국어 문법’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적인 문법이 실려 있었어요. 그 후로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졌어요.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주시경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이 무렵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요.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1910년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며 늘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주 보따리 오신다!”

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주시경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주시경은 늘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 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 보따리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 주시경은 우리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주시경은 한글 연구와 교육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일본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14년 목숨을 거두었어요.

1. 주시경은 왜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부터

2.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인가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3. 주시경이 바꾼 우리 글의 이름 한글은 무슨 뜻인가요?

한글, ‘큰, 하나의 글’

4. 주시경이 우리말 문법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쉽게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어요.

5. 주시경에게 ‘주 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항상 보따리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를 싸서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다.

6. 주시경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아래는 한글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의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의 글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리하세요,

가. 1443년 겨울, 한글이 발표되었다. 3

나. 한글이 만들어지고, 3년 후인 1446년 한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을 담은 ‘훈민정음’이 발표되었다. 5

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지만, 한국의 말은 중국의 한자와는 잘 맞지 않았다. 1

라. 말과 다른 글자를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세종대왕은 몸이 약해져 여러가지 병을 얻은 후에도 마지막 남은 힘을 한글을 만드는데 쏟았다. 2

마. 한글은 만들어지고 나서도 3년 동안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실험해 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4

바.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로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9

사. 주시경 선생은 훈민정음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글 연구와 교육에

힘써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글이라고 무시당하던 한글을 널리 보급했다. 7

아. 이제 한글은 말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의 문자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많은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1

자.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12

차. 우리의 말과 글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던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어 학회를 비롯한 학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8

카. 1894년 갑오개혁으로 훈민정음은 '국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조선의 공식 문자가 되었다. 6

타. 1989년부터 전 세계 글을 모르는 문맹 해결을 위해 노력한 개인, 단체에게 유네스코는 매년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세종대왕 문해상'을 시상한다. 10